치매 가족 위한 힐링 콘서트 '기억의 정원'

전주 문화공간 이룸, 20일 강연·공연으로 '배움과 치유' 선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선사할 '기억의 정원' 힐링 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음 음악협회가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공연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첫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이 복지와 만날 때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올해 '기억의 정원'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배움과 치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주병원 신경과장 김지성 전문의가 강연자로 나서 치매 예방과 관리, 가족 돌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올바른 인식을 돕는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난영, 테너 심용석, 첼리스트 김인하, 플루티스트 정현진, 피아니스트 박찬근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클래식과 성악곡을 선보인다. 'You Raise Me Up', '무제타의 왈츠' 등 친숙하면서도 서정적인 곡들로 감동을 선사하며, 마지막은 모든 출연진이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음 음악협회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며, "이번 콘서트가 지식과 정서적 위로를 동시에 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치매 인식 개선 공연을 정례화하여 예술과 복지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 초대이며, 치매 가족과 전주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는 문화공간 이룸(063-223-5323)으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기억의 정원' 힐링 콘서트 포스터

태권도 자료, 국내 최초 문화유산 됐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지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의 전북도 등록문화유산 지정은 체육 관련 유물 중 국가문화유산에 등록된 사례는 있으나 태권도로는 최초로 '광역자치도' 단위의 문화유산에 등록된 사례이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는 태권도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를 입증하는 유산으로 태권도 세계화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이 현지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정착시킨 활동을 입증하는 기록물이다.

태권도 교육용 교재를 비롯해 교관 도복, 베트남 내 태권도 대회 규정, 훈장 수여 문서 등 총 11점의 자료로 1962년에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이후, 태권도 보급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당시 태권도 교관단의 지도 내용과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태권도 세계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 관련 자료로는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례로 태권도가 스포츠와 함께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권도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주군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1기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SNS 홍보 활동·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등 진행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지난 6일 '제1기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범하는 서포터즈는 주로 20~30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개인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공식 채널을 통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전시 사전 홍보는 물론 개막 이후 현장 취재, 영상제작, 실시간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비엔날레 소개 △서포터즈의 역할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홍보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 김채리는 "짧은 글, 한 장의 사진,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비엔날레를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5회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문화도시 익산 담은 특별한 기념품 탄생

미륵사지 석탑·금동제사리외호·탄생석 담아낸 '비누 세트' 출시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담은 특별한 기념품이 탄생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 디자인과 실용적 상품으로 구현한 '비누 세트 기념품'이 출시됐다.

이번 상품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열두달 비누공방이 협력해 기획·제작됐다. 열두달 비누공방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2)에 입점해 있다.

비누 세트는 문화유산과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의 '미륵사지 석탑'과 2009년 미륵사지 서탑 사리공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 '금동제사리외호'를 담아냈다.

또 익산 문화도시조성사업 비전인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형상화해 열두 달 탄생석의 빛깔과 형태를 반영해 제작됐다.

특히 기념품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안내가 포함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쉽게 익산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세트당 2만1,000원이며, 구매는 열두달 비누공방(익산시 평동로11길)에서 가능하다. 방문객들은 이 공간에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기념품 구매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종묘제례악' 개막식서 축하공연 펼쳐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5일, 주중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주관 전시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5일, 주중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주관 전시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전시 개막을 기념하고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현지에 전하며, 나아가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대금 독주 '청성곡' △독무 '한영숙류 태평무' △민요 연곡 '모리화·아리'으로 꾸려졌으며, 약 200석 규모의 공연장은 현지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중국의 대표 민요 '모리화'와 한국의 '아리랑'을 함께 엮은 무대는 큰 호응을 얻으며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적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

김중현 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가치를 베이징 현지에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